

# “사이버 공간엔 청장년 초발심 왕성”

## ‘천불동’ 박수호시삽 회원현황 분석

### 재가자 운영-스님은 지원 ‘역할 분담’ 불자 고령화·여성중심 기복 ‘이젠 옛말’



유관기관에 전달되는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며 “이것은 전자정보공간이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신속하게 여론을 형성해 쟁점에 대한 현실적 대처가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기 때문에 불교계가 인각사 수품과 같은 민감한 현안에 여론을 모으고 적극 대처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천불동 회원중에는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거주하며 활동하는 사람도 있어 전자정보공간에서의 신앙생활이 시·공간적 한계로부터 자유로워짐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 “사찰과 달리 재가불자들이 천불동 운영을 맡고 스님들은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고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등 균형잡힌 역할 분담도 전자정보공간 신앙생활의 특징”이며 “온라인 상에서 신앙생활은 바쁜 일상에 쫓기는 불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동호회에 접속함으로써 경전공부·수행법 등을 습득해 신심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즉 사전에 공지된 전국 불교인 등에게 일정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등 전자공간이 새로운 신앙의 터로 자리매김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박수호씨는 “불교계의 위상은 물론 사회적 영향력이 커질 수 있는 요소중에서 전자정보공간의 활용은 큰 몫을 차지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오종욱 기자

Location: <http://www.dhammadownload.com>

What's New | What's Cool | Handbook | Net Search | Net Directory | Upgrades

- Buddhist InfoNet: Dharma Centers & Practice Groups
- IntelLinks: Buddhist Studies Resources
- Personal ("Non-organizational") Dharma Pages
- Online Dharma Libraries: Texts, Art, & Multimedia
- Dharma Newsstand
- Meditation Resources Calendar
- Buddhist e-Mail Digests
- DharmaLinks: Geographic Buddhist Databases
- Dharma Dialogue: Newsgroups, Lists, & Chat
- Dharma Teachers: Who's Who
- Engaged Buddhism & Co. Creating A Better World
- Dana Opportunities
- Communities: Dharma Home
- Dharma Marketplace: Publishers & Bookstores & Products & Services
- How you can help...
- Circle of Friends

Other Spiritual Resources  
Misc. Tools & Resources  
The Buddhist Institute

##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국제 달마넷

### 세계불교정보도 창간... 하루 5백여명 이용

인터넷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와 기능이 한 곳에 집중한 국제 달마넷은 다양한 불교정보를 공유하고 세계 불자들이 폭넓게 교류할 수 있는 사이트.

웹 오퍼레이터(운영자) 배리 케프씨는 “달마넷은 가상공간에서 불자들의 교리연구와 수행을 위해 1991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개설된 불교 사이트”라며 “일일 평균 5백여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1백여종의 전자우편을 받고 있는 최대 불교 네트워크”라고 소개한다.

이곳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는 ▲불학 자료 ▲불교도서관 ▲뉴스그룹 ▲대화방 ▲참여연대 ▲게시판 ▲불교용품 쇼핑몰 등.

불교학술 관련 정보에는 원시경전의 전자본과 CD 타이블(방산석경비각집성)(中國房山石經碑刻集成)에 관한 정보를 각각 알려주고 있다. 버클리대에서 출간한 불교서적을 소개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는 전자본도 있다. 또 미국종교학회 등 6개 종교학 사이트와 연동서비스도 제공한다.

영문-전자본(해심밀경)(법화경)(불과 물)(꿈에서 깨어나라) 등의 불교 문헌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자잡지(가쇼·Gassho)를 발간하고 불교예술품을 영상으로 제공한다.

인터넷 불교정보를 분류 포인터 파일도 제공해 준다. 포인터 파일이란 정보와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각 사이트를 분류해 놓고, 이용자가 자신이 가려야 할 사이트로 직접 이동할 수 있도록 한 것. 여기에는 관련 홈페이지(60개) 고퍼(2개) 뉴스그룹(7개) 등을 분류해 놓고 있다.

고승이 드문 미국불교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고승·어록, 미국의 대표적인 도량의 위치를 알려주는 ▲사찰·사원 소개, 세계 유명불자들의 홈페이지와 전자우편을 알려주는 ▲불자 홈페이지·전자우편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http://www.dhammadownload.com/>

## 불교-스스로 찾는 길 가톨릭-절대자의 선물

### 종교별 구원관의 차이

살아있는 것이라면 피할 수 없는 생로병사(生老病死). 각 종교는 ‘구원’을 통해 이같은 고통을 끊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치고 있다.

(신학과 사상)(가톨릭대)가 저술한 불교·가톨릭·원불교 등의 구원관을 특징으로 게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각스님(중앙승가대 불전국역연구원)은 ‘불교적 구원관’에서 “죽음과 태어남의 끝없는 순환 속에서 업으로 윤회(輪廻)가 끝 고통”이라며 “불교적 구원관”을 소개한다.

원이란 업을 정화하고 윤회로부터 벗어나”라고 밝혔다. 또 “길 잃은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이 구원의 실천적 논리”라고 지적했다. 구원을 증득하기 위해서는 조건과 원인에 의해 살아간다는 연기관으로 팔정도의 원리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병현교수(가톨릭대 신학)는 ‘그리스도교 구원관’에서 “구원이란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에 선사하는 비(非)구원으로부터의 해방이며 죄의 용서”라며 “구원이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 삶이며 피안의 희망인 동시에 차안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박광수교수(원광대 원불교학)는 ‘개별시대와 낙원세계’에서 “구원의 주체는 불성을 가진 자이므로 모든 존재의 자체 노력에 의해 구원에 이른다”며 “자아가 전체의 유기적 관계 속에 신앙과 수행, 정신개혁을 능동적으로 전개할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 20일 한중일 학술회의

### 천태불교문화연구원

천태불교문화연구원(원장 도원스님)은 20일 타워호텔에서 ‘현대사회와 천태사상’을 주제로 제1회 한중일 삼국 천태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문화체육부가 후원하는 이번 국제학술회의에서 오립민박사(중국·불교문화연구소 소장)가 ‘천태법화 삼매의 삼삼삼(三三三)’ 무라나카 유소박사(일본·대정대학장)가 ‘참회·그 마음의 치유를 위하여’ 이영자교수(동국대 불교학)가 ‘천태불교의 실천적 다양성과 회통성’ 김상현교수(동국대 역사학)가 ‘천태종에 나타난 역사적 식’ 등을 발표한다. (02)465-4515

‘한국학 중앙연구원’으로 정명된 명칭 바꾸기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원장 이영

## 학술단신

덕)이 개원 20년만에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꾼다. 구립 16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한 정문연은 올 상반기중 국무회의와 국회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

지난 78년 설립된 정문연은 그동안 정권의 이데올로기 생산기관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념도 학술기관 보다는 국가기관의 이미지를 풍긴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 ‘불교학보’ 34집 발간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권기중)이 ‘불교학보’ 제34집을 발간한다.

이번 호에는 ‘선종전승의 실효와 발전’(성본스님) ‘고구려 인현의불상의 조성 시기’(김영태) ‘신라시대 진표의 지장신앙과 그 전개’(홍윤식) ‘대승사상에 대한

부과의 배전(排前)과 그 비판’(권기중) ‘초기불교교단과 국가간의 관계’(신성현) ‘원사상과 그 사회적 의미에 대한 연구’(박경준) 등 논문 18편이 수록됐다. (02)260-3500

## 미안마, 학생운동 탄압위해 단기출가 허가제 실시 ‘빈축’

미안마 군사정부가 민주화 운동에 가담하고 있는 학생들을 억압하기 위해 자유롭게 단기(短期) 출가할 수 있는 청소년 고유 권한을 허가제로 바꾸었다.

미안마 정부는 “단기출가 기간이 망명 조 직결성 등 반정부 활동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제인권위원회는 “미안마 야당의원에 대한 인권 탄압이 학생·스님에게까지 공식적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동아시아 불교국가들은 청소년들이 최소 7일동안 출가를 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해 놓고 있다.

## 日경제인 이나모리회장 ‘환속’ 이유는 경제위기 극복위해

돈과 명예를 버리고 지난해 출가해 화제를 불러모았던 교세화사(社) 명예회장 이나모리 가즈오씨가 세속으로 돌아왔다.

일본 경제의 위기 극복에 대한 소명감이 환속의 이유.

5일 교토지역 경제 단체 신년하례회에 모습을 나타낸 그는 “개인적 철학 추구를 보류하고 지역 경제를 바로 잡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9월 삭발, 승려가 된 이나모리 명예회장은 지금껏 교토의 얼굴로 추앙받고 있으며 경제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제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 “한국 채색화 불화의 說彩 수용” 윤정숙씨 ‘한국 채색화 연구’ 발표

한국의 채색화에 사용된 색채의 상징적 의미는 고려·조선시대의 불화에 근거해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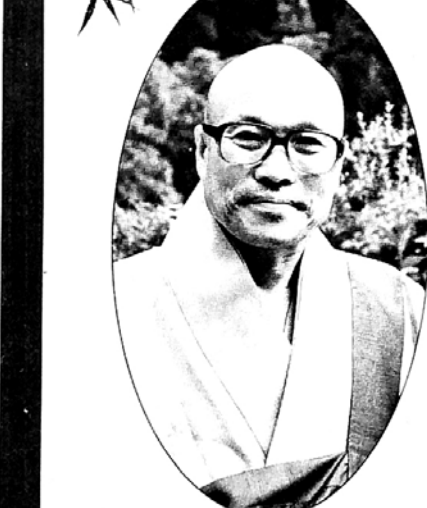
윤정숙씨(전북대 교육학)는 석사논문 ‘한국 채색화에 관한 연구-한국 불화를 중심으로’에서 “채도의 순도가 아주 높은 한국 채색화는 고려·조선시대의 불화(佛畵)에 걸쳐 수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시작해 고려 불화에서 전성기를 이루고 조선조 민화로 이어진 전통화양식인 채색화, 따라서 우리 문화와 밀착해 있던 불교미술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

윤씨는 “고려불화에서 부처님을 표현하는데 쓰여진 금색의 설화 불보살의 적색 가사는 귀한 존재임을 상징하는 준비표현이며 음양설에서의 양(陽)의 개념으로 길(吉)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조선불화에 주로 사용된 녹색·청색 등의 원색들은 고려불화와 비교해 격이 다소 떨어지지만 귀족적 품위를 펼쳐버린 일반 대중을 상징하는 색채”라고 설명했다.

윤씨에 따르면 불화의 채색은 깨달음을 목적으로 한 상징적 미의식의 투영일뿐 아니라 음양오행적 색채관의 오색(황·적·청·흑·백)과 우리민족 생활에 깃들여진 준비표현 의식이 복합적으로 표현된 우리 민족의 특수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정숙씨는 “불화의 채색에서 한국적 색채와 상징성을 재발견할 때 채색회화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도는 실천적이 이론이 아니다. 하지만 법에 맞지 않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 따라서 기도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성취 만큼이나 중요한 일인 것이다.”

##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타르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인 《기도》의 발간 이후, 독자들로부터 기도 방법을 묻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저는 현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옳은지요?”... 계속되는 독자들의 기도법에 관한 문의에 저자로서의 책임을 느낀 스님께서는 다시 필명을 시작, 《생활 속의 기도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책 《생활 속의 기도법》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 할 때 지켜야 할 마음가짐까지, 세세한 일타르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 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86 / 160면 / 값 3,500원

제1장 《기도 성취의 지름길》 제2장 《생활 속의 기도법》 제3장 《특별 기도 성취법》 제4장 《영가 천도 기도법》

# 생활 속의 기도법

법보사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함인혜택을 드립니다. ☎ 동선호림 전화 : (02) 587~6612 팩스 : (02) 586~9078



## 불교 출판계의 스타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르스님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의 체험담을 엮은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가 실린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I. 나와 가족·제자의 기도 이야기 / II. 7도는 세달음의 지름길  
III. 업병도 불치병도 기도를 통하여 / IV. 목숨을 구한 일명의 기도  
V. 생활 속의 기도와 득력(得力) / VI. 7도인을 비는 길로

## 일타르스님의 알기 쉬운 불교책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일타르스님의 윤회와 인연 이야기 모음집 신국판 / 값 4,500원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강》에 대한 일타르스님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아운비구의 《자경문》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 신국판 / 값 5,000원

법공양문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신국판 / 값 5,000원

범공경보살계1~5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일타르스님의 무애법(無礙法)을 기록·편집한 책 신국판 / 1-5권 각권 값 6,000원

김로법문 듣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이 샘솟는 일타르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테이프 5개 세트 / 값 10,000원